



새로운 천년의 문을 힘차게 열어젖히고

대림산업(주)

21세기를 시작하는 2001년 한해도 저물고 바야흐로 대망의 2002년이 다시 밝아오고 있다.

대림산업(주)는 2001년 건설 업계가 판도가 크게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는 가운데 IMF 구제 금융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구조 조정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효과들을 나타내기 시작한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구조는 주식 시장에서 높은 평가로 주주들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었고, 선도적인 위치를 굳힌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E(Engineering) & C(Construction) 합병의 구조 조정 이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 경영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영의 혁신을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도 지난

1995년 이후 영광 원자력 5·6호기 공사를 수행하며 경영 원칙인 미래 창조, 인간 존중, 고객 신뢰의 정신에 따라 대림 특유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품질 안전 경영으로 건설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하여 영업 확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 확보

올해의 국내 건설 경기는 최근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 증대와 민간 주택 부문의 회복 등으로 수주 면에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익 면에서는 1천억원 이상 P/Q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면서 저가 수주에 따른 원가 올 상승 요인 및 일부 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건설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주와 고객을 위한 경영'으로 보고 올해의 경영 방침을 '이익 중시 경영'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 확보'로 정했다. 외형보다는 수익성 우선의 내실 경영을 펼쳐 가겠다는 것이다.

주주를 위한 '이익 중시 경영'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 경상 이익률 10% 이상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주주의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차별화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상품', '기술', '인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 요소별 차별적 우위를 점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토목/건축/플랜트 등 각 분야의 사업들을 현재 펼쳐 나가고 있는 주력 사업과 중장기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 건설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사업 분야로 나누고 이들 사업 분야별 포트폴리오 (Portfolio) 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2년 사업 계획

1. 중점 추진 사업

정부의 전력 사업 구조 개편 추진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까지 8기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2월에 발주될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등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발주될 예정이다.

대림은 영광 원자력 5·6호기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기 공사 수주를 위하여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민자 SOC 사업 등 제안형 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고 환경 민자 사업은 선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자 발전소 사업 추진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 외에 최근 수년간 건설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 부문에 있어서 대림산업은 작년 아파트 1만여 가구를 공급, 90% 이상 분양에 성공하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다소 많은 1만1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파트에 정보 통신 설비를 도입, 아파트의 정보화 경쟁을 일으켰던 대림 'e-편한세상'은 올해는 '신평면'과 '친환경' 설계로 또한

번 아파트 주거 문화의 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2. 경영 혁신(조직 개편 등 구조 조정 계획 포함)

급변하는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에 2본부, 13부를 축소하는 조직 재편을 추진하였다. 2002년도에도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

대림산업(주)는 1939년 10월 10일 창업 이래로, 창업 50주년이 되는 1989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대림 21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룹의 비전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 정하고, 목표를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의 GENECON'으로 하여, 세부 실천 사항으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하여 '기술력 고도화/시장 다변화/경영 체질 SOFT화'를 추구하여 왔다.

창업 60주년이 되는 1999년에는 '60년의 힘으로 새로운 세기를'이란 슬로건 아래 기업 체질 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내실있는 기업 운영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코자 대림엔지니어

링과의 합병을 이뤄 건설 시공 능력과 엔지니어링 설계 및 조달 능력 등 핵심 역량의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 및 지속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영업 체제에 중점을 둔 경영을 추진함은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운영 체제와 프로젝트별 경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21세기를 정보화와 다변화의 시대로 보고 이런 경영 환경에서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통해 60년의 역사의 건설 경험·지식·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그 결과를 전임직원들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

지식 경영을 바탕으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공사·자금·회계·노무·인사 등 전분야의 업무 흐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대림은 초고속 정보 사회에 발맞추어 체계화된 지식 창고 및 경영 관리 시스템을 근간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앞선 미래 예측과 신속한 대처로써 세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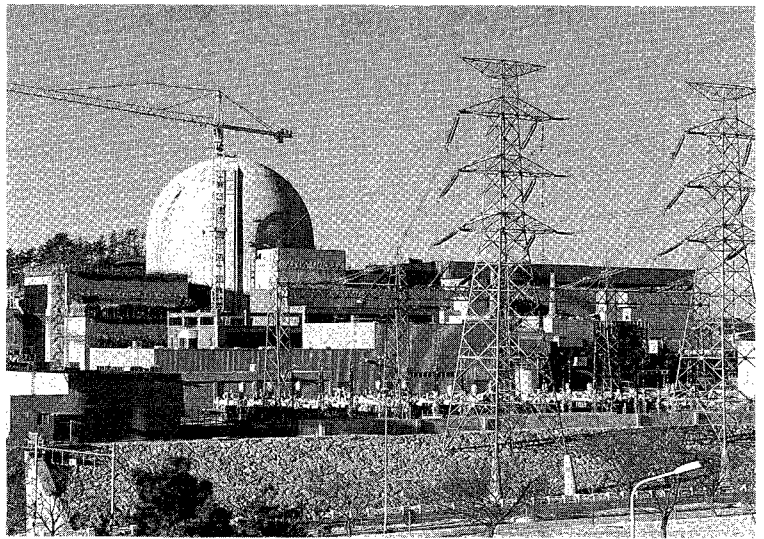
의 흐름을 주도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영광 원전 5·6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행중인 대림산업(주)는 2001년 10월 5호기의 핵연료 장전 착수에 이어 올해 각각 4월과 12월에 5호기와 6호기의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당사는 영광 원전 건설 초기에 미국의 S&L(Sargent & Lundy)로부터 프로젝트 관리/건설 관리/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술을 축적했고, 원전 건설 시공성 향상 연구 용역을 한국전력기술(주)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원전 건설의 시공 기술 능력 향상을 연구해왔다.

이제는 「사업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기반 구축」, 「기술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투자 분석, 공사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자원 관리(인력·자재·장비·협력 업체 등)」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기술(주)가 주관하는 표준 원전 설계 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철근 자동 배근기 사용」, 「PREFABRICATION 및 모듈화 공법 적용」, 「RCB 건물 건설 공기 단축」, 「DECK PLATE 공법」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대림」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해외 원



대림산업(주)는 영광 원자력 5·6호기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기 공사 수주를 위하여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자력발전소 시공 기술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신기술 개발과 시공 기술 능력 향상에 전념해 왔다.

또한 지속적인 직원의 교육과 훈련으로 현장 관리 및 시공 기술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대림 원전 표준 절차서 작성, 원전 사업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할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원전 건설 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대림산업(주)는 원전 시공 기술 자립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공사 관리/자원 관리(인력·자재·장비·협력 업체 등)/기술 능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독자적인 공사 수행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기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천년 기업을 꿈꾸며

천년 기업을 꿈꾸며 새 천년을 향한 도전에 나서 이제 명실상부한

21세기 세계적 건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조와 도전 정신을 불태우고 있는 대림산업은 「지식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도약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분야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본받아 더욱더 견고한 기업으로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플랜트 건설로 쌓아 올린 명성과 원전 건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시대의 안정적인 클린 에너지 공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대림은 앞으로도 명실공히 최강의 E&C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구자적 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제 핵심 역량을 총집결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천년 기업의 꿈을 실현할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 크게 응징해 나갈 대림의 미래를 원자력 산업계에서도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